

“일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주 가사노동 아동이
참여한 보고서



Save the Children

THEY SAY
I AM LUCKY
TO HAVE A JOB



I. 배경

1. 개괄

많은 아동이 성인과 같이 이주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빈곤,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 통과의례, 가정 내 폭력과 학대, 에이즈로 인한 부모의 사망이나 정치적 분쟁 등으로 다양하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이주 아동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홀로 이주하는 아동은 노동착취나 폭력에 더욱 취약하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¹

이주가 항상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이주자와 이주자가 살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지역 세미나(Regional Seminar in Southern Africa)’에서는 “이주 아동은 이전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이르기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주 아동이

란 서류상으로 이민이 등록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아동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이주 아동은 아래의 경우에 처한 아동 역시 포함하여 이른다:

- 국내 지역으로 이주한 아동
- 국외 이주 아동
- 노숙 및 노점 아동
- 난민신청 아동
- 서류상 또는 경제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보호자와 함께 이주한 아동
- 보호자의 이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아동
- 현재 아무런 지위도 없는 아동²”

또한 남아프리카 지역 세미나의 줄리아 오코넬 데이비슨



(Julia O'Connell Davidson)은 많은 이주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침해받은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받기 위해서 이주하기 때문에 이주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주 아동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선지와 이주 목적, 체류기간, 이주에 따른 영향은 성인 이주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모든 형태의 이주를 고려하면,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아동의 수는 가히 충격적이다”(Whitehead & Hashim 2005).

사만다 펀치(Samantha Punch)는 아동들이 이주하는 이유를 거시적 이유와 미시적 이유로 분류했다. 거시적 이유로는 정치·경제적 불안, HIV나 AIDS의 창궐이나 자연재해 등이 있고, 개발 부족이나 일자리 부족 또한 거시적 이유에 해당된다. 미시적 이유로는 가정폭력, 학대, 개인적인 문제나 성차별적 요소들이 있다. 아동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가사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국내 혹은 국외로 이주하는 여아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2. 가사노동 아동

아동의 가사노동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드러나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같은 이유로 가사노동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추산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이주 아동이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가사노동 아동이란?

가사노동 아동이란 자신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집안일을 맡아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일컫는다. 가사노동 아동이 하는 일은 아이 돌보기, 집안일 하기, 요리, 정원 다듬기, 심부름 등이며 때로는 고용주의 소규모 사업을 돕기도 한다. 가사노동 아동이 늘 노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보수 대신 그 집에 거주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기도 한다. 가사노동 아동이 반드시 고용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부모와 떨어져 다른 가

정에서 지내는 아동의 경우 더욱 보호받기 힘들다. 가사노동 아동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친척집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가족과 고용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아동이 노동자도, 가족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은 보통 여아들의 일로 간주되지만, 사춘기 이전의 남아들도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버들렌더(Budlender)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여아보다는 남아들이 노동에 따른 보수를 받고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4. 가사노동 아동이 생기는 원인

아동들이 이주를 하는 이유와 가사노동자가 되는 이유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빈곤,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재, 성, 가정폭력, 탈농, AIDS나 전쟁으로 인해 부모와의 사별 등이 그 이유다. 또한 아동들은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나 사회경제적 격차, 타인의 가정에서 안전하다는 통념, 가사노동자가 향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사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더욱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이주와 가사노동을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허용하며, 특히 여아에게는 다른 형태의 노동보다 가사노동이 선호된다. 전반적으로 아동이 이주하는 이유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4.1 빈곤

국제노동기구(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빈곤은 아동 노동의 원인이자 결과이다³. 저소득 국가에서는 빈곤 가정의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환경은 아동 노동에 일조한다. 동시에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아동노동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RIP



아프리카에서 아동노동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며, 그 중에서도 아동노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지역이다. 아동노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동남 아시아지만, 1인당 소득 증가와 핵가족의 확대, 초등교육의 증가로 아동노동자 비율은 감소해왔다. 반면 빈곤이 확대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여아들이 별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가사 노동을 위한 이주로 내몰리고 있다. 이 지역의 빈곤은 많은 경우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농업 부문 파괴가 낳은 결과이다.

빈곤선 부근 혹은 아래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가정은 가장의 사망이나 질병, 흉작, 이혼 등의 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가정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아동은 학업을 중단해야만 하거나 가정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가사노동 아동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난한 가정의 출신인 경우가 많다. 버딜런(Bourdillon)에 따르면 아동이 가사노동을 하면서 학대와 모욕을 받더라도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아동의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사노동 아동이 고용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향후 개선된 형태로 고용될 가능성도 있다. 블랙버러(Blagbrough)에 따르면, 가사노동은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특히나 여아에게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간주하기 때문에 빈곤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타개책으로 꾸준히 이용해왔다.

1980년대부터 빈곤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제의 변화로 이민자가 크게 늘면서 일부 국가는 이민자가 송금하는 수입에 국가 재정을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몇몇 국가는 이 송금액에 기대어 지금 개발을 방관하거나 시민의 복지를 이민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4.2 교육에 대한 접근성

버딜런(Bourdillon)과 오코넬 데이비슨(O'Connell Davidson)에 따르면 아동노동과 교육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들은 가정의 수입을 보충하거나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 혹은 부모가 학업을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일자리로 내몰

리게 된다. 빈곤과 교육비 때문에 아동은 특별한 숙련기술이 필요 없는 노동에 종사하게 되며, 그 결과 미숙련, 저소득 직종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모로코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빈곤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 아동노동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모로코의 아동노동 빈도가 높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버딜런은 이어 질이 낮은 교육과 기회의 부족 때문에 아동들이 교육 대신 노동을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육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동이나 그 가족이 학교 대신 노동을 택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이 높다면 아동이 학교를 우선 순위로 둘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이 낮고 학교 교육이 직업의 기회로 이어지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많은 아동이 노동을 최선의 선택으로 보고 있다.

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가정 환경도 아동이 이주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아동들은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이주하거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터를 찾기도 한다.

4.3 보호자의 사망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HIV와 AIDS 때문에 아직 어린 아동들이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2005년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추산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약 1,500만 명이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으며 이 중 1,200만 명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살고 있다. 빈곤과 에이즈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 빈곤은 HIV 감염 확률을 높이며 HIV 감염은 가정과 지역사회, 사업, 국가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어 빈곤을 더욱 심화시킨다.

한 가정의 가장이 HIV 감염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면 아동들은 부모나 보호자를 잃게 되어 친족들과 살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염병이 확산될수록 양육이 가능한 사람이 줄기 때문에 한 가정이 맡을 수 있는 친족 아동 역시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하는 아동이 생기고, 나이가 조금 많은 아동이 보호자 역할을 맡아 생계를 꾸리기도 한다. HIV와 에이

스로 인해 아동은 일거리를 찾아 집과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이는 아동노동이 세대간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모의 질병이나 죽음 이외에도 부모의 알코올 중독, 가정의 해체나 가정폭력 또한 아동이 집을 떠나 가사노동을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4.4 여성과 아동의 지위

가사노동 종사자 중 여아가 많은 현상은 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사노동을 가정에서 어머니나 여아가 맡는 집안일의 연장으로서 별다른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로 인식한다. 블랙버러에 따르면, 많은 지역에서 여아들이 가사노동자가 되는 원인은 가난 때문만이 아니라 향후 어머니와 아내가 될 여아들에게 가사노동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습 때문이기도 하다. 더불어 여아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제한 때문에 여아들은 가사노동 이외에 찾을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낮은 지위를 고착시키고, 교육을 받을 여아의 권리와 직업을 택할 권리 등을 침해해서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저해하고 의존성을 높인다.

많은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을 열등하거나 부수적인 존재로 여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학교를 그만두는 쪽은 보통 여아이다. 가정 내 AIDS 환자를 돌보기 위해 여아가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는 일도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가사는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일’로 치부된다. 부모 또한 가사노동은 어렵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여아들에게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이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가사노동자는 착취당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노동 조건은 노동자를 위협하고 취약한 처지로 만든다. 이는 성인에게도 해로운 일이지만 아동의 경우 그 해악이 더욱 크다.

5. 가사노동 아동이 직면한 문제

아동권리정보네트워크(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직업환경의 특성상 착취당하기 가장 쉬운 노동자이다⁴.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도 힘들고 차별을 경험하게 되며, 직업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가사노동 아동은 낮은 연령과 권리의식 결여, 보호해 줄 가정의 부재, 고용주에 대한 의존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가사노동 아동이 고용주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권력은 고용주에게 더욱 기운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 아동은 기존에 살던 집에서 먼 곳에서 일하며,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은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권력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때때로 아동들은 차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가사노동 아동은 고용주의 자녀와는 다른 대접을 받으며, 질이 낮은 음식을 먹고 잠자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

대다수의 경우에 가사노동 아동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 교육을 받게 해 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때문에 이들의 빈곤은 더욱 심화된다. 가사노동 아동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동이 받는 교육의 질은 현저하게 낮다. 또한 아동들은 장시간 고된 가사노동을 하기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다. 소수이긴 하지만 가사노동 아동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한 경우도 있다. 버딜런은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에서 가사노동 수입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사례를 인용했다.

가사노동자는 장시간 일하며 사실상 24시간 근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고용주의 집에 거주하는 가사노동 아동의 경우 일터와 집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휴식이나 취미생활의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가사노동 아동에게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은 매우 불분명하다. 하지만 “고용주가 자신을 자녀처럼 대하며 자애롭게 대화

한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다. 가사노동 아동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놓이기도 하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때로는 매우 큰 책임이 따르는 보육을 맡기도 한다.

가사노동 아동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은 고용주에 대한 아동의 의존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동을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생활 역시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또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블랙버러에 따르면, 여아들은 언어적 폭력에 더욱 노출되는 반면, 남아들은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언어적 폭력은 협박, 모욕, 고함 등을 포함하며, 신체적 폭력에는 구타와 과도한 업무 혹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블랙버러는 가사노동 아동의 고립과 고용주와의 불명확한 관계가 아동을 학대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플로어스-외반다(Flores-Oebanda)는 많은 가사노동 아동이 성학대를 당하며 성학대와 가사노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증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버딜런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리마와 페루 가정의 연구를 언급하며 가사노동자가 종사하는 가정의 남성 60%가 가사노동자와 첫 성경험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어 벵갈 서부 지역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인용하며 가사노동 아동의 1/4 가량이 고용주와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강요 받았다는 점도 증거로 제기했다.

성학대를 당한 가사노동 아동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 그들은 쫓겨나서 오갈 곳이 없게 된다. 또한 성학대 피해에 대해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한다. 이처럼 길거리로 내얹게 된 이 아동들에게 성노동은 일반적인 행보가 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가사노동 아동의 노동조건 중 많은 부분이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가사노동 아동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⁵.

버딜런은 일 자체가 아동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아동이 노동하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일, 그리고 아동의 이익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다. 아동노동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노동 금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행해져야 한다. 그는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아비장(Abidjan)에서 한 NGO단체가 15세 미만의 여아의 노동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펼쳤던 사례를 인용했다. 이 캠페인의 결과 많은 고용주들이 여아를 고용하기를 꺼려했으며 이에 따라 여아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여아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해당 NGO가 자신의 삶의 지휘권을 박탈했다며 시위를 벌였다. 버딜런은 “제3자가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해 아동들을 보호하려고 할 때 그 NGO처럼 접근한다. 아동의 가사노동 금지는 아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캠페인이다. 아동들은 때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함으로써 자신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의 가사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몇몇 아동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아동의 가사노동 철폐에 앞서 모든 결정에서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노동 철폐 캠페인은 아동이 치러야 할 비용과 얻게 될 이익을 반드시 고려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버딜런은 이러한 아동의 수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원인은 아동기에 대한 감성적인 견해나 선진국의 시각으로 정의한 아동기라는 표현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아동기는 놀이나 학습, 보호를 위한 시기이지만,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문화적 관습을 가진 저개발국에서 이러한 정의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6. 결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사노동 아동에 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아동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원인을 해소하기 힘든데다 가사노동 이외엔 아무런 생계수단이 없는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는
이주 가사노동 아동이 참여한 보고서

“일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아동들도 많다.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의 특성상 아동의 노동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가사노동 아동은 취약한 환경에 처하기 쉽다. 논
의한 바와 같이 가사노동 아동이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동의 가사노동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해
결책은 아니다. 우리는 아동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
어 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한다. 이 연구는 그 목소리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다.



II. 권고사항

아래는 정부와 NGO, 공여자,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권고사항이다. 모든 관련 당국은 이주 아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감행함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사노동 여아에 대한 직접적 지원

- 여아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일과 보건, 교육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같은 지원은 이미 여아들 간에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외국에 있더라도 자신에게 보호받을 권리와 보건 등 기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여아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이주 아동에게 구직의 기회를 넓혀주어 이들이 착취나 학대의 위험이 높은 직업을 찾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 교육

- 일이 필요한 아동을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출신 국가에서의 교육

- 이주 아동이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주의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주가 발생하는 현황을 인정해야 하며 아동과 일가족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모잠비크가 치모이오(Chimoio) 국경 지역에서 진행한 ‘리빙 홈(Leaving home)’ 캠페인은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예이다.

옹호

- 인근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 단위로 15세 미만의 여아까지도 일하고 자립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지 논의한다.
- 장기적으로 아동들이 집을 떠나 교육받을 곳이나 일터를 찾는 문제를 해결한다.
-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논의한다.

¹ Reflections from the Regional Seminar on Children Who Cross Borders in Southern Africa, Save the Children UK, May 2009.

² Ibid, p6

³ <http://www.ilo.org/ipec/childdomesticlabour/lang-en/index.htm>

⁴ <http://www.crin.org/petitions/petition.asp?petID=1051>

⁵ South Africa: Child domestic worker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02